



지난해까지만 해도 울릉도를 둘러보려면 도동이나 저동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 북동쪽 천부에서 다시 갔 던 길을 되돌아와야 했다. 왕복하는 시간은 2시간이 넘게 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시계방향으로 향했다. 사업 계획 확정 55년 만인 지난해 12월, 드디어 개통한 일주도로 마지막 구간은 시원스러웠다. 내수전 터널, 와달리 터널, 섬목 터널을 통과하니 10여분 만에 관음도 입구에 도착했다. 섬의 동쪽 내수전~섬목(4.75km) 구간은 험준한 해안 절벽이어서 1976년 일주도로 착공 이후 40여년 동안 미개통 상태로 남아있었다.

울릉도의 숙원사업이었던 일주도로가 완전히 개통한 것을 가장 환영하는 건 북면 주민이고, 가장 언짢은 건 아마도 괭이갈매기일 듯싶다. 관음도로 가기 위해 정류장 주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니 괭이갈매 기 우는 소리가 요란하다. 길바닥도 안전 펜스도 새들의 분비물 천지다. 괭이갈매기는 독도가 주요 집단 번 식지지만, 이곳 울릉도 동쪽 해안 가파른 절벽도 차지했다. 날갯짓하지 않고 기류를 타고 활공하는 괭이갈 매기에게 독도에서 울릉도까지 87㎞쯤은 그리 먼 거리도 아니다. 번식기를 맞아 한껏 예민해진 어미새들에 게 몰려드는 자동차와 사람들이 고깝지 않을 수 없을 터. 내 구역이라고 텃세를 부리는 건지, 하도 봐서 신 경도 쓰지 않는 건지 코앞까지 사람이 다가가도 굳이 피하지 않는다. 날지 못하는 어린새는 차도를 아장아 장 걸으며 달려오던 트럭을 멈춰 세웠다. 하지만 최근 뚫린 도로는 다른 곳보다 쌩쌩 달리는 차들이 많았고, 그런 차에 치여 죽은 괭이갈매기도 눈에 띄었다.







#### '울릉도는 나의 천국'

관음도에서 나와 북쪽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달린다. 기존의 일주도로는 곳곳에서 확장·보수 공사 중이다. 왕복 1차선인 터널 앞에서 마주 오는 차가 진입하지 않을 때까지 신호등에 따라 멈춰있어야 하는데, 공사 때문에 그런 구간이 꽤 많다. 바다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몽돌해변이 많지도 않은데 도로 확장으로 더 줄고 있다고 한 주민은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관음도에서 나와 처음 만나는 죽암몽돌해변도 주변 공사로 어수선했다. 북면의 중심지인 천부항을 지나면 송곳처럼 뾰족하게 높이 솟아 바다까지 그림자를 드리우는 송곳봉이 나타난다. 마그마의 통로인 화도가 굳으면서 생긴 높이 430m의 이 거대한 암벽은 속도를 늦추고 감탄하며 올려다보게 된다. 송곳봉을 지나 평리에 들렀다. 2004년 울릉도에 정착한 가수 이장희 씨가 집 앞 농장 부지를 기증해 지난해 5월 문을 연 울릉천국 아트센터가 있다. 송곳봉과 석봉을 뒤로 하고 연못과 정자, 야외 공연장이 있는 정원은 단정하게 꾸며졌다. 한쪽에는 울릉도의 아름다움을 알려온 이씨가 2011년 발표한 노래 '울릉도는 나의 천국' 노래비도 있다. 아트센터 안에는 소극장뿐만 아니라 카페와 전시홀이 들어서 쉬었다 가기 좋다. 이장희 씨는 이곳에서 부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는데, 마침 8월 공연이 예정돼 있다. 1일 부터 17일까지 목·금·토요일 오후 5시에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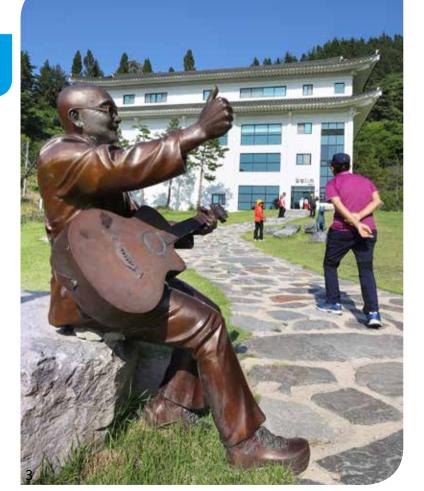
1 연도교가 놓인 관음도 2 방사상 주상절리 3 울릉천국 아트센터 정원( 있는 가수 이장희 씨의 동상

## 섬속의섬

관음도는 울릉도 부속섬 중 독도와 죽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섬이다. 2012년 길이 140m의 연도교가 놓이면서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게 됐다. 매표소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까지 올라가 내리면 여기서도 괭이갈매기가 요란하게 맞는다. 지금은 괭이갈매기에게 섬을 내줬지만,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깍새(슴새)가 훨씬 많아 섬이름도 깍새섬이었다 한다. 깍새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흑비둘기와 함께 섬사람들의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했다. 하얀 새똥과 눈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괭이갈매기가 지키고 있는 데크를 지나 다리에 다다르기전까지 바닥이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눈을 뗄 수 없다. 다리에 올라 오른쪽으로 울릉도를 돌아보면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방사상 주상절리(용암이 빠르게 식을 때 육각기둥 모양으로 굳은 지형)가 보인다.

다리를 건너 빽빽한 동백나무 숲으로 난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대지(臺地)가 나타난다. 산책로가 A코스, B코스로 나뉘어 있지만 두 코스를 합쳐도 850m에 불과하고, 섬 모양을 따라 기다란 '8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천천히 걸으며 해안 절경과 섬 주변을 모두 둘러볼 만하다. A코스 전망대에서는 죽도와 방사상 주상절리, 내수전 해안을 볼 수 있고, B코스 전망대에서는 삼선암이 보인다. 섬 전체가 국가지질공원인 울릉도에서 관음도는 대표적인 지질명소다. 1시간 30분가량 지질공원 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해설 프로그램 문의는 생태·지질 탐방객센터(☎054-791-2114)로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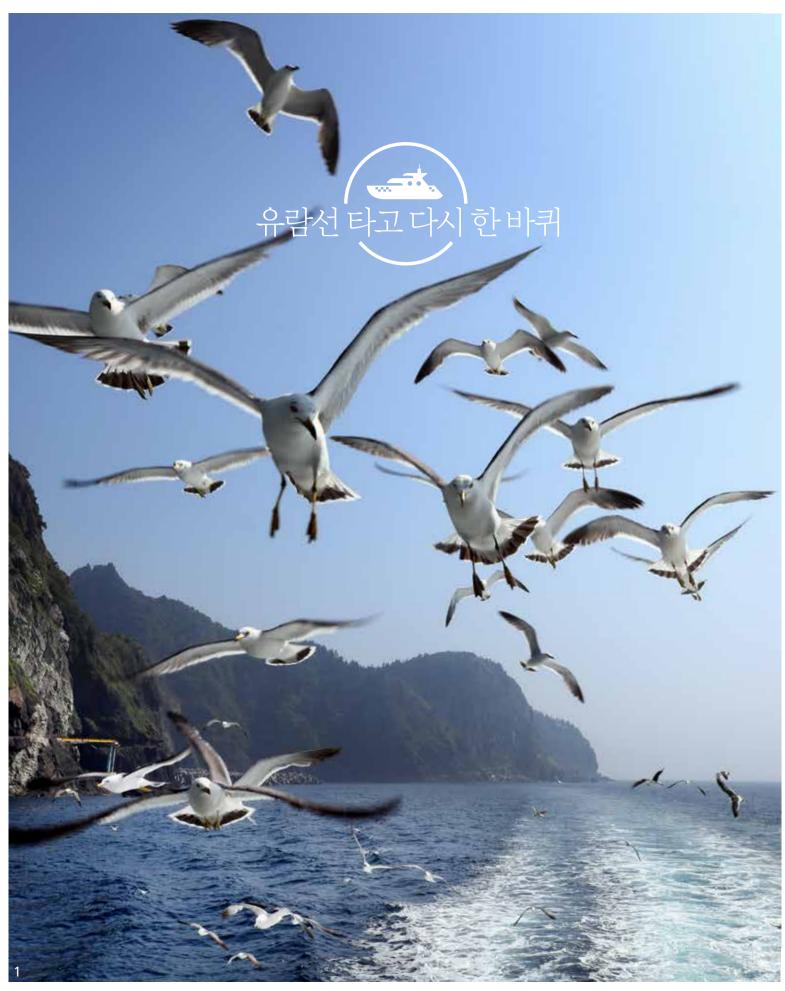








1 돛단배가 바람을 기다리던 대풍<mark>2</mark> 2 대풍감 전망대에서 보는 북면 해? 3 학포의 몽돌해변





1 새우과자를 먹기 위해 유람선을 따라오 괭이갈매기 2 도동항 전경 3 항구마다 오징어를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울릉도의 최고봉인 성인봉은 984m지만, 섬 자체는 해저 2천m에서 솟아오른 화산이다. 폭발할 때 점성이 높은 용암이 멀리 퍼지지 않고 그대로 굳어 종(鐘) 모양을 이뤘다. 해수면 위로 드러난 섬은 거대한 뾰족산의 최정상 부분인 셈이다. 울릉도의 비경은 대부분 해안가의 깎아지른 절벽과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가 어우려져 만들어낸다. 괭이갈매기도 아닌 사람이 쉽사리 다가갈 수는 없다. 섬 둘레를 도는 일주도로마저 아무리 터널을 뚫고 다리를 이어도 해안으로 다가가지 못하는곳도 있다. 울릉도에서만큼은 해상일주 유람선이 좋은 선택인 이유다.

# 괭이갈매기와 함께 출발

아직 비수기라 하루 한 차례뿐인 해상일주 유람선을 타러 일찌감치 도동항에 도착했다. 밤새 잡혀 올라와 새벽까지 손질을 거친 오징어들이 '울릉도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대나무에 줄줄이 꿰어진 채 아침부터 쨍한 햇살에 몸을 말리고 있었다. 육지에서는 장마가 시작됐지만, 울릉도에서는 장마철에도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마른장마를 겪는다. 죽도로 향하는 유람선이 먼저 출발하고 곧이어 일주 유람선에 올랐다. 배가 출발도 하기 전부터 눈치가 빤한 괭이갈매기들이 모여들었다. 배는 항을 나와 섬을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맨 위층 갑판 오른쪽에 자리를 잡았다. 탑승객들이 하나둘 새우 과자를 꺼내 던지거나 손에 들고 있으니 괭이갈매기들이 달려들었다. 코앞까지 다가와 시야를 가릴 지경이었다. 작지도 않은 몸으로 크게 퍼덕이지도 않으며 배의 속도에 맞춰 날면서 정확하게 과자를 채가는 자태는 위풍당당하기까지 했다.





1, 3, 4 해상 3대 비경으로 꼽는 공암과 관음쌍굴, 삼선암 2 거북바위 뒤로 보이는 통구미 마을



## 험준한 절벽과 기암괴석이 만드는 비경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주요 지점을 지날 때면 선장이 안내 방송을 통해 마을 유래와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니 놓치지 말자. 가두봉 등대를 지나면 통구미 마을이다. 이 마을엔 명물이 많다. 가두봉 터널을 지나자마자 시작되는 몽돌해변과 거북 모양의 바위가 마을로 들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북바위, 그 왼쪽으로는 험준한 절벽에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48호)가 보인다. 절벽을 관통하는 일주도로의 통구미 터널은 울릉도 최초의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다. 울릉도에서 가장 따뜻한 남쪽 마을이라는 남양마을에서는 조면암 주상절리의 절경을 보여주는 비파산의 국수 바위를 볼수 있다. 주상절리가 갈라진 모습이 국수 가락을 닮았다. 국민여가캠핑장이 있는 구암마을에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 아기곰을 업고 있거나, 앞발을 들거나, 앞발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곱바위가 있다. 학포항 직전에는 만 가지 상이 보이는 절경이라는 만물상을 지난다. 대풍감 서쪽 해변의 낚시터를 지나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 향목 전망대에서 보는 대풍감의 비경, 괭이갈매기의 보금자리인 절벽을 다시 마주한다.



## 해상 3대 비경

대풍감에서 석포까지 쭉 뻗어 있는 북쪽 해안 한가운데서 울릉도의 해상 3대 비경이 시작된다. 그 처음은 송곳봉 앞바다에 있는 코끼리 바위다. 예전엔 작은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있어 공암이라고 불렀고, 사람들이 코끼리의 존재를 알고 난 뒤부터 코끼리 바위라는 이름이 더 친숙해졌다. 육각기둥 모양의 주상절리로 된 바위 모양이 코를 물에 담그고 있는 코끼리를 꼭 빼닮은 데다, 얼굴 부분은 육각기둥의 단면으로 돼 있어 진짜 코끼리의 피부처럼 보이기도 한다. 구멍이동서 방향으로 나 있기 때문에 코끼리 얼굴은 바다로 나와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 북면의 중심지인 천부를 지나면 동쪽 해안 끝에 3대 비경 중에서도 1경이라는 삼선암이 보이기 시작한다. 꼭대기가 가위처럼 갈라져 있는 일선암과 약간 떨어져 이선암, 삼선암이 가까이 마주보고 있다. 관음도 전망대에서 볼 때는 이선암과삼선암이 앞뒤로 겹쳐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배위에서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삼선암에는 이곳의 빼어난 경치에 반한 세 선녀가 내려와 놀다가돌아갈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저동에서 내수전, 석포를 따라 북쪽 중심지 인 천부까지 이어지는 울릉 숲길은 개척민 들이 처음 섬에 발을 들인 이후 100여년 동 안 폭풍우로 배가 뜨지 못할 때면 걸어 다니 던 유서 깊은 길이다. 내수전 정상에서 석포 까지 이어지는 옛길은 울릉도의 생태길 중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으로, 자 연 그대로의 질박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덕분에 이곳에서 윤판아재비나물, 섬기린 초, 회솔나무, 섬단풍나무, 섬벚나무, 우산고 로쇠, 여우꼬리사초, 울릉미역취 같은 울릉 도 특산 식물들도 알게 됐다. 제철을 맞아 활짝 피어있는 건 이름도 예쁜 섬바디꽃과 섬초롱꽃이었다. 작은 흰 꽃이 여러 개의 꽃 다발처럼 송이송이 피어있는 섬바디꽃은 그 청초한 외양과 상관없이 가축의 사료로 널리 쓰여 '돼지풀'이라고 부르고, 자줏빛 반점을 새긴 초롱 모양의 꽃이 너무 예뻐 차 마 건드리지도 못한 섬초롱은 그 잎을 나물 로 무쳐 먹는다고 한다. 섬사람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물정 모르는 육지 사람의 객쩍은 감상은 길을 따라 이어졌다. 그렇게 깎아지 른 절벽을 옆에 끼고 걷다 보면 우거진 숲 사이로 바다와 죽도가 나타났다 사라진다. 옛길의 중간 지점인 정매화골에는 쉼터가 있다. 토착민 중 정매화라는 사람의 외딴집 이 있던 곳이다. 1962년부터 20년 가까이 이 곳에 살았던 이효영 씨 부부가 폭설이나 폭 우에 조난한 사람을 300여명이나 구조했다 는 미담이 옛길의 추억으로 남아있다. 옛길 을 나오면 내수전으로 내려가는 포장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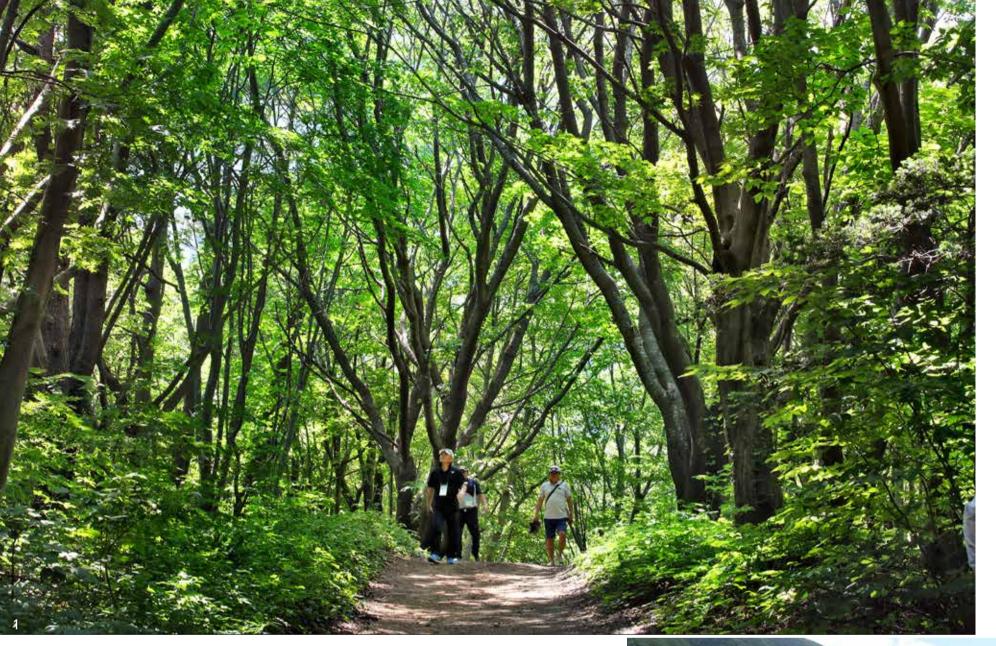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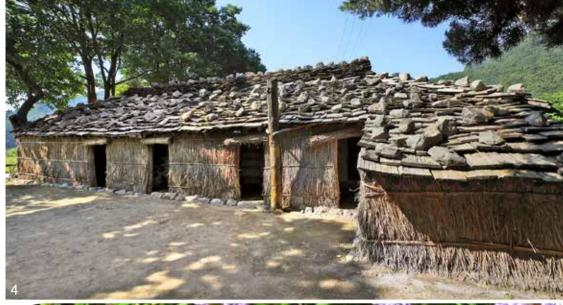
로 이어진다. 왼쪽으로 난 내수전 전망대로 올랐다. 내수전 전망대는 독도 다음으로 가장 먼저 일출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사람이 직접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울릉도는 '전망대의 섬'이라고 할 정도로 곳곳에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많다. 맑은 날엔 독도까지 볼 수 있지만, 이날은 자욱한 해무 뒤로 저동항과 죽도만 흐릿하게 보였다. 옛길 반대쪽 끝에 있는 석포 전망대는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다. 1904년 러일 전쟁 당시 일본군의 망루가 있던 곳으로, 관음도와 죽도, 삼선암, 북면의 해안절경까지 한눈에 보인다.



1 내수전 옛길 초입

www.yonhapimazine.com | 41







1성인봉 원시림의 '신령수 가는 길'
2 스펀지처럼 가벼운 부석
3 울릉도 유일한 평지인 나리분지
4 개척 당시 형태가 보존된 너와집
5 섬백리향

# 성인봉 원시림 속으로

나리분지에서 성인봉 기슭에 이르는 숲길인 '신령수 가는 길'은 마음이 부듯해지는 트레킹 코스다. 섬단풍나무, 섬피나무, 우산고로쇠, 회솔나무 같은 울릉도 고유종으로 이루어진 원시림(천연기념물 제189호)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눈과 코와 가슴이 탁 트이면서 아, 하고 짧은 감탄사를 내뱉었다. 초기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단단한 화산암은 토양이 만들어지기도 어려운 척박한 땅이었다. 하지만 약 5천년 전의 마지막 화산 활동으로 부석이 울릉도 전역을 뒤덮었고, 이 부석이 풍화하면서 원시림이 조성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다. 부석은 화산이 분출할 때마그마 속의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만들어진 수많은 공기 방울을 품은채 식은 암석이라 물에 뜰 정도로 가볍다. 숲길에 굴러다니는 주먹만한 부석을 들어 올리니 정말 스펀지처럼 가볍다. 울릉국화와 섬백리향



군락지(천연기념물 제52호)에서는 가을에 꽃을 피우는 울릉국화 대신 향기가 백 리를 간다는 섬백리향이 연보랏빛 꽃을 피우고 있었다. 개척민들이 살았던 형태가 그대로 보존된 투막집(중요민속문화재 제256호)을 지나 시원한 신령수 약수로 목을 축이고 돌아오는 코스는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한 최고의 휴식과 치유 그 자체였다. 나리분지가 만들어진 이후 그름으로 다시 한번 마그마가 분출해 솟아오른 알봉 주변으로도 최근 생태길이 만들어져 더 여유롭게 둘러볼수 있다. ♥





물가

모든 물자를 육지에서 배로 실어와야 하는 섬 지역 특성상 숙박, 식비 등 대부분의 물가는 꽤 높은 편이다. 식비를 예로 들면 백반이 9천~1만원, 홍합밥이나 오징어 볶음 등은 1만5천원 선이다.



#### 울릉역사문화체험센터

1910년대 일본인 벌목업자가 지은 일본식 2층 목조주택이다. 해방 이후 10년 정도 여관으로 운영되다가 이후 2008년까지 개인 주택이었다. 2006년 등록문화재(235호)로 지정됐고 2008년 문화재청이 매입해 국민신탁이 관리하고 있다. 보수공사를 거쳐 2011년 역사문화체험센터로 문을 열었다. 울릉도 개척사와 일제 수탈사를 보여주는 영상물과 사진 자료, 책 등이 전시돼 있다. 카페를 겸하고 있어 2층 다다미방에서 쉬어가기 좋다.









44 | YONHAPIMOZĪNE August 2019